
세계적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파주출판도시 관리체계 전환(안)

기획보고서

2017. 9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출판도시 관리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09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책임연구원

이규동 문화기획가

연구원

김기범 시애틀컨설팅 수석연구원

김우석 시애틀컨설팅 수석연구원

김리현 시애틀컨설팅 주임연구원

자문위원

이환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상무이사

전기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획실장

김춘식 파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장

목 차

[요 약 문]	1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6
1. 추진 배경	6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8
1. 연구 내용	8
2. 연구 방법	8
제2장 파주출판도시 운영 현황 및 입주기업협회의 운영 성과	9
제1절 운영 현황	9
1. 조성 목적	9
2. 운영 체계	9
3. 입주기업협회의 및 조합의 역할과 한계	9
제2절 입주기업협회의 운영 성과	11
1. 문화산업단지로서의 국가적 기여도	11
2. 입주공동체로서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	26
제3절 운영의 한계 및 시사점	27
1. 현 관리기관의 역할과 한계	27
2. 시사점	28
제3장 세계적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전환	30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	30
1.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성과	30
2. 문화공동체로서의 자율적 계약도시 형성	31
3.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목표	32
제2절 제4차 산업사회에서의 산업단지의 변화	35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회의 변화	35

2.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37
3. 파주출판도시 운영관리 개선 방향	40
제3절 관리기관 전환 당위성	42
1. 파주출판도시 관리기관 위탁 배경과 과정	42
2. 현 관리기관의 한계의 관리업무의 변화	43
3. 관리기관 전환의 시기성과 당위성	48
제4절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51
1. 입주기업협의회 관리기관 전환 사유	51
2.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52
제4장 결론	55
제1절 파주출판도시 ‘자치기구’ 설립 및 입주기업체 의견	55
1. 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 통합 ‘자치기구’ 설립	55
2. 입주기업협의회 경영자 및 입주기업체 의견	56
제2절 결론 : 관리체제 전환 방안	58
1. 연구 결론	58
2.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58
3.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관 위탁 장점	58
4. 관리기관으로서 입주기업협의회가 준비할 사항	59
5. 관리체제 전환 타당성 근거	59
[부 록 1] 「산업집적법」 근거 관련 조항	62
[부 록 2] 「관리기관 체제 혁신 방안 연구」에 대한 자문 질의와 답변	63
[참 고 문 헌]	67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3개 기관이 설립 및 운영을 관여하여 사업주체가 복잡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은 토지이용 및 시설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산업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조성 당시 수립된 관리기본계획이 현재까지 획일적 통제 차원에서 변경된 바 없어 실효성이 부족함.
- 초기 단지개발 및 조성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파주출판도시의 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기관의 개편 및 기능 재편이 필요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문화 산업 및 문화 활동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창출자부터 디자인, 유통, 최종소비자 등의 긴밀한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
- 기초조사와 국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토대로 창조산업 클러스터 및 문화 도시 전략 측면에서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설계함.

2. 연구 방법

- 산업단지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 법규와 연구 논문 조사, 설문 및 면담 등을 실행하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근거로 연구 결론을 설정함.

제2장 파주출판도시 운영 현황 및 입주기업협의회 운영 성과

제1절 운영 현황

1. 조성 목적

-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출판문화산업을 집적화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기 위함.
- 국제 문화정보 교류 및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명소’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운영 체계

- 관리에 관한 고시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리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파주지사)

3. 입주기업협의회 및 조합의 역할과 한계

- 입주자 모집, 공공시설의 유치, 입주기업 지원 사업과 문화산업단지로서의 특성화 사업, 도시운영 프로그램은 대부분 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에 의해 수행되어 왔음.
- 입주기업 편의지원 및 단지 활성화 사업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맡고 있으나 법적인 권한 및 예산의 부족, 절차적 복잡성 등으로 산업단지 운영의 한계가 있음.

제2절 입주기업협의회 운영 성과

1. 문화산업단지로서의 국가적 기여도

- 집필실, 전시장, 북카페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교육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건축심의위원회를 두고 건축, 조경, 옥외광고물의 디자인을 통해 도시미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 벤치마킹의 우수사례가 됨.
-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하고, ‘파주북어 워드’를 신설하여 ‘세계문학상’으로 그 지위를 격상하고 있음.

- 어린이책잔치, 국제출판포럼, 국제출판에디터스쿨, 동아시아 책의 교류 등 문화행사 개최와 국내외 국제도서전시회에 파주출판도시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음.

2. 입주공동체로서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

- 출판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약 200억 원의 비용 절감과 6천명의 고용창출 및 1조 7천억 원의 매출 상승에 기여함.

제3절 운영의 한계 및 시사점

1. 현 관리기관의 역할과 한계

- 단지 조성과 관리에 있어 현 관리기관의 역할과 수행실적을 보면 분양, 입주업무의 단순 행정과 절차상 사무처리 기능 외에 출판도시의 발전을 위한 추진 계획은 전무한 상황임.

2. 시사점

- 출판도시가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의 융통성 있는 관리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국내 유일의 문화산업단지로서 문화산업 활성화, 도서전 개최, 공동 문화예술행사 및 시설운영, 국제교류, 독자유치, 박물관, 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필요함.

제3장 세계적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전환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

1.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성과

- 출판 및 영상과 디자인, 건축, 그리고 도시와 문화의 만남이라는 입체적인 상호상생과 교류를 통해 창의적이고 특수한 문화를 만들어 냄.

2. 문화공동체로서의 자율적 계약도시 형성

- 파주출판도시 조성 초기 입주기업들이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입주기업 간 기준을 세워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음.

3.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목표

- 문화 산업의 기능적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박물관 도시’ 라는 개념을 도입해 1) 창조산업도시, 2) 건축문화도시, 3) 생태환경도시, 4) 문화축제도시, 5) 인문교육도시, 6) 미래창의도시를 지향함.

제2절 제4차 산업사회에서의 산업단지의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회의 변화

- 공유 경제가 등장하고 기존산업을 혁신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새로운 리더십과 혁신이 필요함.

2.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라 연구개발, 문화·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혁신 창출 기능을 보완하여, 지식산업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를 만들어가는 추세임.

3. 파주출판도시 운영관리 개선 방향

- 산업단지는 장소 중심적인 면에서 사람과 네트워크 중심으로,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소통과 자율중심으로 변해야 하며, 활동과 기능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

제3절 관리기관 전환 당위성

1. 파주출판도시 관리기관 위탁 배경과 과정

- 1998년 파주출판도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고시권한을 제외한 관리권한을 위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리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한시적으로 위탁하였음.
- 2006년 9월 ‘입주기업(체)협의회’ 를 설립하여 관리기관 업무를 이관 받고자 했으나, 2단계가 진행 중이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기업협의회로 변경되었음.

2. 현 관리기관의 한계와 관리업무의 변화

- 시설공동관리, 방문객투어, 책방거리조성, 공동보육시설 운영과 파주북소리 축제, 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에서 산단공의 실적이나 계획이 없음.

- 단지 내 평면/면적 중심의 구조적, 행정적 단지관리 개념을 입체적/연계적 부가가치 창출 개념으로 관리보다는 운영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함.

3. 관리기관 전환의 시기성과 당위성

- 1단계 완성, 2단계 입주기업 분양 완료(입주 90% 이상)로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음.
- 협의회는 약 10년간 문화산업단지로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단지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7년 8월, 1, 2단계 입주기업들은 통합 자치기구인 ‘통합입주기업협의회’를 설립하여 관리기관의 자격 및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

제4절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1. 입주기업협의회 관리기관 전환 사유

- 1, 2단계 입주 업무가 완료되어 입주기업체의 단점이 해소되는 현 시점에서 산업관리공단의 단점을 해소하고 입주기업체의 장점을 살리는 것은 필연적 과제임.
- 관리비용 부담 등 재정 자립 계획 문제는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와 운영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음.

2.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 관리기관은 산집법 시행령 제59조3항에서 “법 제31조에 의한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9조4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에 위탁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 시행령 제59조 4항에서 정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제4장 결론

제1절 과주출판도시 ‘자치기구’ 설립 및 입주기업체 의견

1. 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 통합 ‘자치기구’ 설립

- 2단계가 완성되어지고, 자치기구로서 통합입주기업협의회가 탄생되었으므로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관리기본계획은 변해야 함.
- 이를 위해 “관리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체계를 마련하여 입주자들의 부당한 활동이나 편법과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버린 산업용지 관리를 제어하며, 도시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2. 입주기업협의회 경영자 및 입주기업체 의견

- 본문 및 부록 참고

제2절 결론 : 관리체제 전환 방안

○ 현 통합입주기업협의회를 관리기관으로 전환

- 개요 : 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로 관리기관 변경
- 절차 : 현 입주기업협의회를 산집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권자의 법인설립에 대한 승인을 구함.

(고시권자 산업통상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 사업주체의 복잡성

- 파주출판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개발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법률상의 국가산업단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3개 기관이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
- 1991년 **사업협동조합** 설립
- 1994년 9월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사업추진단 공식 출범
- 1995년 12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으로 조합 명칭 변경
- 1996년 9월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공고 - 파주시 공고 239호
- 1997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 1998년 7월 산업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관리권자로 위탁, 같은 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에 의해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
- 2000년 4월 ‘위대한 계약’ 체결(시범지구 공동설계 계약 조인식)
- 2003년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설립
- 2004년 6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완공
- 2007년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설립
- 2007년 4월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의 완성 및 2단계 사업 본격화
- 2007년 11월 2단계 참여 출판-영화사 간 MOU 체결

나. 산업단지공단 관리방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단지관리지침의 기능은 토지 이용 및 시설관리를 중심으로 구성함.
- 문화산업단지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화산업이 갖는 변화성, 다양성, 유연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움.
- 관리기관은 법률적 재정적 문제로 인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충족 못하고 있어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 창조적 문화산업단지로 변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발전전략 부재

- 현실적인 단지 관리권자이면서 국가 문화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법적인 연계성 구체화가 필요함.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관리기본계획의 개선

- 조성 당시 수립된 관리기본계획이 현재까지 획일적 통제 차원에서 변경된 바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여 관리기관의 산업단지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킴.
- 단지 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거시설, 지원상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하려는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나. 조성 목적과 부합하는 운영 방식으로의 변경

- 산업단지공단의 관리방식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산업단지의 특성과 맞지 않음.
- 초기 단지개발 및 조성중심의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파주출판도시의 도시 활성화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기관의 개편 및 기능 재편이 필요함.
- 파주출판도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권을 지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의 변경 또는 새로운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제도 개편이 필요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출판 ‘산업’ 도시에서 출판 ‘문화’ 도시로의 재규정

- 문화산업 및 활동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창출자부터 디자인 및 유통, 최종소비자 등의 긴밀한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

나. 실 입주기업들의 니즈를 통한 문제 및 과제 파악

-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들은 업종 특성과 현황,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조직이 직접적 관리기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파주출판도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출판도시 구성원 및 단지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통합해서 파주출판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

다. 출판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설정

- 기초조사와 국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토대로 창조산업 클러스터 및 문화도시 전략 측면에서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의 탐색이 필요함.
- 국부적이고 제한적인 사업과 정책 지원구도를 탈피한 법에 의한 관리권 및 정책 집행권을 획득할 방안이 필요함.
- 파주출판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해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관리체계를 설정함.

2. 연구 방법

- 실체성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 출판도시를 만들어 온 기관이 중심이 되어 출판산업단지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 법규와 연구논문 조사, 설문 및 면담 등을 실행함.
- 현 입주기업체 및 관련 단체의 피해, 불만에 대한 사례와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현 관리기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유와 입장을 파악함.
- 입주기업체의 수용 사안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연구 결론을 설정함.

제2장 파주출판도시 운영 현황 및 입주기업협회의 운영 성과

제1절 운영 현황

1. 조성 목적

- 출판, 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출판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함.
- 첨단 정보 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 출판문화 창달을 위한 산업기반 및 공간 조성 및 출판 유통구조를 현대화함.
-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명소’ 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
- 단순 산업시설을 넘어, 거주민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외부인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도 충족되는 도시를 건설함.

2. 운영 체계

- 관리에 관한 고시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리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단,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파주지사)

3. 입주기업협회 및 조합의 역할과 한계

- 단지 조성과 관리에 있어 현 관리기관의 역할과 수행실적을 보면 분양 및 입주업무의 단순 행정과 절차상 사무처리 기능 외에 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그 발전을 위해 기여하거나 향후 추진할 기능과 계획은 전무한 실정임.
- 입주자 모집, 공공시설의 유치, 입주기업 지원 사업과 문화 산업단지로의 특성화 사업, 도시운영 프로그램은 대부분 조합과 입주기업협회에 의해 수행되어 왔음.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 모집과 계약 업무 외에 입주기업체 편의 및 경영 지원과 단지

의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 단지 조성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그러나 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뚜렷한 발전 계획이나 단지 관리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입주기업을 위한 편의지원 사업과 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과 문화 프로그램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맡고 있음.
- 2007년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도 2017년도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리기관으로서 산단이 실제 수행해야할 업무는 관리 매뉴얼에 의한 단순 사무(산업집적법과 관리계획에 의한 사후관리와 지원 사업)에 그침.
- 이처럼 입주기업 지원 사업 및 문화산업단지 특성화 사업, 도시운영 프로그램의 다수가 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에 의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권한 및 예산의 부족, 절차적 복잡성 등으로 산업단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리기본계획 주요 사항에 대한 역할과 실적>

추진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협의회/조합
1. 조성계획 수행, 분양, 입주 관리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에 따른 사무 및 행정 지원	입주자 모집 및 추천, 공공시설 유치, 건축심의등 자율적 도시/단지조성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분양 수탁대행 등
2. 입주기업 지원사업	-	단지 청소등 도시관리, 시설공동관리, 방문객투어, 책방거리 조성, 공동직장보육시설 운영, 문화사업 (파주북소리축제) 등
3. 단지 특성화 사업	-	출판문화진흥사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

구 분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협의회/조합관리기관
1. 조성 목적	-	민간 발기인, 조합, 협의회, 재단에서 수행
2. 단지 설계	관리지침에 북카페 운영 추가	조합, 공동체에서 도시 디자인을 마련, 수행
3. 입주사 관리	입주계약, 공장등록(사업개시신고)	입주 예비사 모집, 선정 및 사옥건축 지원

※ 파주출판단지에서 공공기관 역할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수행하였음.

제2절 입주기업협의회의 운영 성과

1. 문화산업단지로서의 국가적 기여도

가. 교육도시의 기능 수행

- 산업단지임에도 건물마다 연구실, 집필실, 전시장, 북카페, 서점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책 문화를 즐기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음.
- 파주북소리를 비롯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방문자에게 인문학강좌를 제공함.
- 책을 만드는 행위의 기능적 과정과 구성요소를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독자들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풍성한 조경과 다양한 행사개최를 통해 방문자에게 쾌적한 옥외문화공원을 제공함.

나. 건축가의 영입을 통한 도시미학적 우수성

- 자율적인 건축심의위원회를 두고 건축, 조경,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및 공공적인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세워 이를 준수해 옴.
- 입주 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선도한 독창적인 건축물 설계로 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문화사에 이례적인 사례로 남음.
-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세계의 전시공간에서 파주출판도시의 도시 개발 사례와 건축물이 전시됨.
- 국내외에서 출판도시를 찾는 건축 투어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다. 해외 벤치마킹 우수사례가 된 출판산업단지

-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북시티는 파주출판도시를 벤치마킹해 건설 중임.
- 중국과 대만에서도 파주출판도시 같은 공간을 조성하려고 시도 중임.

라. 민간 주도 상향식 건설의 모범적 사례

-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국가주도의 하향식으로 건설되지만 파주출판도시의 경우는 민간 주도로 건설되었음에도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큼.

마.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에 따른 국가이미지 제고

-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는 문화적 도시환경과 문화·예술·지식정보 산업 분야에서 인적자원 등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도시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독자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하고 있음.
- 파주출판단지는 입주사의 축적된 인문학 자산과 인적네트워크 및 각종 국내·외 행사 개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문학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유네스코 10월 말 결과 발표
- 파주출판단지가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되면 유네스코의 각종 국제행사, 세계 문학창의도시와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문화허브로 성장이 가능함.

바. ‘파주북어워드’를 신설하여 ‘세계문학상’으로 격상 추진

- 파주출판도시는 아랍의 노벨상인 2012년 세크자드상을 수상(출판산업 발전 공로)한 바 있어 세계출판계에 큰 의미가 있음.

사. 출판 문화행사 개최 확대

-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책잔치를 개최함.
 - 50개 출판 문화행사 개최, 입주사별 체험 전시, 도서전 및 독서행사 등
- 국내외 국제도서전시회(서울국제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파리도서전, 불로냐도서전, 북경도서전 등)에 파주출판도시 홍보관을 만들어 파주출판도시 완성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파주출판단지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출판콘텐츠 홍보(출판, 인쇄, 유통의 집적화 시설 활용) 및 출판저작권, 인쇄물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파주출판도시 콘텐츠 홍보관을 조성함.
 - 2단계 클러스터 사업으로 250백만원 지원

아. 국제교류의 기회 마련

- ‘국제출판포럼’, ‘국제출판에디터스쿨’, ‘동아시아책의 교류’를 개최하여 국내·외 출판동향을 적극 수용하고, 세계출판 편집기술을 습득하며, 국제출판전문가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제출판포럼’, ‘국제에디터스쿨’, ‘동아시아책의 교류’ 를 2단계 입주사 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2단계 입주사와 관계자에게 국제출판동향과 편집기술을 교육하여 국내출판물의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자. 인문학강좌 확대, 멀티 출판체험관 조성

- 1단계 입주사를 활용한 연간 200개 인문학강좌를 개설 및 강연함.
 - 지혜의 숲, 개별 입주사와 연계
- 2단계 입주사의 참여와 인문학강좌를 확대함.
 - 2단계 입주사 100개사에서 연간 300회 실시
 - 입주 출판사에서 출판콘텐츠를 강연하고 강연내용을 토대로 출판물로 발간하여 양질의 출판물 생산을 확대(출판, 영상, 공연 등 복합 추진)
- 출판영상복합문화 체험관을 통해 2단계 입주사 출판·인쇄, 영상 체험장 설치 및 체험학교를 운영함.
- 전국 소외계층 청소년 4천명에게 파주출판단지 방문 통해 출판, 인쇄현장 체험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문화산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아랍에미리트의 국부인 '셰이크자이에드'를 기리는 '셰이크자이에드 도서상의 문화기술부문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주출판도시의 디자인적 혁신과 특색 있는 문화중심 역할을 인정하여 '우수디자인 산업단지 최우수상'을 수여하였다..

차. 파주출판산업단지 정부지원 사업 추진

① 출판도시 투어활성화 사업

사업명	출판도시 투어활성화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간	2016. 03. 01~12.31	
총사업비	164,000천원	
	(국고 : 104,000천원 / 자부담 : 59,000천원)	
집행액	162,997천원	
	(국고 : 103,997천원 / 자부담 59,000천원)	
	자부담 : 협의회 인건비 및 현물 부담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 투어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용 지도 50,000부 제작 및 배포 - 홍보용 리플렛 30,000부 제작 및 배포 - 견학안내서 4,600부 제작 및 배포 - 투어 홍보용 기념품 18,900개 제작 배포 ■ 출판도시 체험프로그램 개발 :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 스크린 터치용 작가, 출판기획,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 ■ 출판도시 캐릭터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 및 인쇄산업의 특성을 살린 캐릭터 디자인 - 출판산업 관련 분야별 응용, 활용 가능한 캐릭터 디자인 -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내 캐릭터산업 전문 미디어 회사 ‘아이 러브캐릭터’ 와 함께 공조 홍보 실행 - 우수 캐릭터 심사를 통한 시상식 진행 ■ 출판도시 홍보물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 안내센터 및 출판도시 내 문화공간 비치 - 출판도시 내방객 및 투어 참가자에게 배포 - 외부행사 (박람회, 축제 등) 진행 시, 출판도시 홍보물 배포 ■ 출판도시 해설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사 현황 : 총 11명(한국어 8명, 영어 1명, 중국어 1명, 일어 1명) - 정기모임 및 보수교육 : 총 9회, 28시간 운영 - 해설 프로그램 개발 	
	세부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리포트형 교육프로그램 (저널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소재를 활용하여 취재 및 기사문 작성 체험 하는 저널리스트 창작체험 투어 - 체험센터 및 글쓰기 투어를 통해 체험자는 자발적 	

		<p>으로 기삿거리를 찾고 취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유로운 발상을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널리스트 방에서 디지털 신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조별 신문을 완성 - 한정된 기자재 환경으로 인해 프로그램 체험 인원은 최대 24명으로 제한
	<p>스토리구성 교육프로그램 (스토리텔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스토리텔러형 창작 체험투어 - 이야기를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프로그램 - 이야기의 3요소(인물, 사건, 배경)을 이해하고 스토리텔링의 구성(기승전결)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 -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장소들을 위주 투어하며 글쓰기 체험 전 이야기에 대한 개념들을 익히고 동기를 부여함 - 추리, 수수께끼, 퀴즈, 그림 등을 통해 투어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강의존 수업과 연계한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 기대
	<p>이미지변환 교육프로그램 (카피라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출판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본인이 소개하는 대상을 한 줄로 표현하는 카피라이터 창작 체험 투어 - 카피라이터의 역할을 이해하고 카피를 써보는 것이 목적이며 이론 수업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상상력 확장을 도모 - 강의존 카피라이터 방에서 본인이 창작한 카피를 캘리그래피를 활용해 핀 버튼을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사 워크샵 : 1회 - 해설 660회 해설 (한국어해설 647회, 영어해설 9회, 일어해설 2회, 중국어해설 2회) ■ 출판도시 안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센터 이용객 : 17,223명(2016년 12월 말 집계) - 주중 2명, 주말/공휴일 1명 - 운영시간 : 09 :00-17 :00(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기능 : 출판도시 및 아시아 센터 안내, 견학/투어 안내 상담 ■ 출판도시 투어사업 연구용역 - 연구기관 : 한국능률협회 - 연구기간 : 2016.10~12 - 출판도시 문화공연 프로그램, 전용 앱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업데이트 및 습지생태공원 내 편의시설 조성사업, 출판도시 캐릭터 공모전, 투어사업 등 연구, 체험학교 사업 등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의 계절 가을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투어 관광객이 방문하였음. - 풍성한 조경으로 인해 봄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을 알 수 있음. - 2015년도에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으나 2016년 소폭 하락함. 																																																			
	월별 출판도시 투어 방문 현황(2016)																																																			
	<table border="1"> <caption>월별 방문인원 (2016)</caption> <thead> <tr><th>월</th><th>방문인원</th></tr> </thead> <tbody> <tr><td>1월</td><td>~500</td></tr> <tr><td>2월</td><td>~500</td></tr> <tr><td>3월</td><td>~1000</td></tr> <tr><td>4월</td><td>~1500</td></tr> <tr><td>5월</td><td>~2200</td></tr> <tr><td>6월</td><td>~1000</td></tr> <tr><td>7월</td><td>~1500</td></tr> <tr><td>8월</td><td>~1000</td></tr> <tr><td>9월</td><td>~1800</td></tr> <tr><td>10월</td><td>~3800</td></tr> <tr><td>11월</td><td>~2500</td></tr> <tr><td>12월</td><td>~1000</td></tr> </tbody> </table>	월	방문인원	1월	~500	2월	~500	3월	~1000	4월	~1500	5월	~2200	6월	~1000	7월	~1500	8월	~1000	9월	~1800	10월	~3800	11월	~2500	12월	~1000	<table border="1"> <caption>월별 방문횟수 (2016)</caption> <thead> <tr><th>월</th><th>방문횟수</th></tr> </thead> <tbody> <tr><td>1월</td><td>~10</td></tr> <tr><td>2월</td><td>~10</td></tr> <tr><td>3월</td><td>~28</td></tr> <tr><td>4월</td><td>~48</td></tr> <tr><td>5월</td><td>~28</td></tr> <tr><td>6월</td><td>~40</td></tr> <tr><td>7월</td><td>~25</td></tr> <tr><td>8월</td><td>~48</td></tr> <tr><td>9월</td><td>~72</td></tr> <tr><td>10월</td><td>~60</td></tr> <tr><td>11월</td><td>~15</td></tr> </tbody> </table>	월	방문횟수	1월	~10	2월	~10	3월	~28	4월	~48	5월	~28	6월	~40	7월	~25	8월	~48	9월	~72	10월	~60	11월	~15
	월	방문인원																																																		
1월	~500																																																			
2월	~500																																																			
3월	~1000																																																			
4월	~1500																																																			
5월	~2200																																																			
6월	~1000																																																			
7월	~1500																																																			
8월	~1000																																																			
9월	~1800																																																			
10월	~3800																																																			
11월	~2500																																																			
12월	~1000																																																			
월	방문횟수																																																			
1월	~10																																																			
2월	~10																																																			
3월	~28																																																			
4월	~48																																																			
5월	~28																																																			
6월	~40																																																			
7월	~25																																																			
8월	~48																																																			
9월	~72																																																			
10월	~60																																																			
11월	~15																																																			
월별 방문인원	월별 방문횟수																																																			
연간 출판도시 투어 방문 현황																																																				
<table border="1"> <caption>연간 방문인원</caption> <thead> <tr><th>연도</th><th>방문인원</th></tr> </thead> <tbody> <tr><td>2014</td><td>15584</td></tr> <tr><td>2015</td><td>23426</td></tr> <tr><td>2016</td><td>17223</td></tr> </tbody> </table>	연도	방문인원	2014	15584	2015	23426	2016	17223	<table border="1"> <caption>연간 방문횟수</caption> <thead> <tr><th>연도</th><th>방문횟수</th></tr> </thead> <tbody> <tr><td>2014</td><td>436</td></tr> <tr><td>2015</td><td>563</td></tr> <tr><td>2016</td><td>396</td></tr> </tbody> </table>	연도	방문횟수	2014	436	2015	563	2016	396																																			
연도	방문인원																																																			
2014	15584																																																			
2015	23426																																																			
2016	17223																																																			
연도	방문횟수																																																			
2014	436																																																			
2015	563																																																			
2016	396																																																			
연간 방문인원	연간 방문횟수																																																			

② 출판도시 체험학교 운영

사업명	출판도시 체험학교 운영(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간	2016. 03. 01~12.31																		
총사업비	97,000천원																		
	(국고 : 84,000천원 / 자부담 : 13,000천원)																		
집행액	96,993천원																		
	(국고 : 83,993천원 / 자부담 : 13,000천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교 총 70회 개최, 2,992명 참가 - 수도권 58회(2,136명), 지방 12회(856명), 총 67개 학교(단체) 참가 ■ 총 11개사(출판도시 입주사 및 지역) 25개 체험프로그램 165회 운영 ■ 체험학교 만족도 조사 																		
사업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000~3,000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학교를 통해 출판인쇄 문화를 체험 통해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함.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 체험학교를 참가한 교사들은 출판도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96%가 만족(그렇다 이상)한다고 응답함. - 출판도시 체험학교 참가 학생들은 체험 프로그램에서 흥미정도에 대해 86%가 만족(그렇다 이상)한다고 응답함. <p style="text-align: center;">교사 및 학생의 체험학교 만족도</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교사 만족도: 0.96, 기타: 0.04 학생 만족도: 0.86, 기타: 0.14</p> </div>																		
프로그램 운영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 2016.03.01.~12.31 ■ 운영횟수 : 총 70회 개최, 2992명 참가 ■ 운영 총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횟수</th> <th>인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 <td>58</td> <td>2,136</td> <td>참가비 일부 지원</td> </tr> <tr> <td>지방</td> <td>12</td> <td>856</td> <td>참가비 일부 지원</td> </tr> <tr> <td>합 계</td> <td>70</td> <td>2,992</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횟수	인원	비고	수도권	58	2,136	참가비 일부 지원	지방	12	856	참가비 일부 지원	합 계	70	2,992	
구분	횟수	인원	비고																
수도권	58	2,136	참가비 일부 지원																
지방	12	856	참가비 일부 지원																
합 계	70	2,992																	
예산집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 문화공연 프로그램, 전용 앱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업데이트 사업, 습지생태공원(산책로)내 편의시설 조성사업, 출판도시 캐릭터 공모전, 투어사업의 연구, 체험학교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적극 집행 																		

③ 출판도시 복합문화 조성사업

사업명	출판도시복합문화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간	2016. 03. 01~12.31		
총사업비	210,000천원		
	(국고 : 192,000천원 / 자부담 : 18,000천원)		
집행액	209,987천원		
	(국고 : 191,987천원 / 자부담 : 18,000천원)		
사업추진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 내 야외 상설무대를 통해 연중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하여 출판도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성을 제공함. ■ 출판도시 내 방문객의 유입을 높여 출판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015년에 제작된 출판도시 전용 앱을 활용하여 출판도시 2단계까지 포함한 출판도시 전역에서 동일한 서비스 이용률을 높임. ■ 파주시가 조성하는 산책로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산책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 		
사업내용	■ 출판도시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연 프로그램		
	1차	일시	2016년 6월 4일 (토) 14 :00~16 :00
		장소	파주출판도시 야외무대
		대상	출판도시 가족단위 방문객
		인원	40여명
		내용	홍대인디밴드 공연팀 4팀 초청하여 피크닉 콘서트 개최
	2차	일시	2016년 7월 9일 (토) 17 :00~19 :00
		장소	파주출판도시 야외무대
		대상	출판도시 가족단위 방문객
		인원	30여명
		내용	어린이 인형극단 씨앗 초청하여 피크북콘서트 진행
	3차	일시	2016년 8월 27일 (토) 18 :00~19 :30
		장소	야외상설무대
		대상	출판도시 가족단위 방문객
		인원	100여명
	내용	파주시 교육지원과와 함께 북 콘서트 진행	
4차	일시	2016년 10월 1일 (토) 16 :00~17 :00	
	장소	야외상설무대	
	대상	출판도시 가족단위 방문객	

		인원	300여명
		내용	과주북소리 축제 퍼레이드와 연계한 야외무대 공연 진행
	5차	일시	2016년 10월 22일 (토) 13 :00~15 :00
		장소	야외상설무대
		대상	출판도시 가족단위 방문객
		인원	30여명
		내용	과주시, 고양시 관내 직장인 밴드 컨테스트 대회 진행
		일시	2016년 11월 12일 (토) 14 :00~15 :30
	6차	장소	야외상설무대
		대상	출판도시 가족단위 방문객
		인원	90여명
		내용	캐릭터 어린이 인형극 -어리이야기
		일시	2016년 11월 12일 (토) 14 :00~15 :30
	사업추진성과	<p>■ 출판도시 앱 시스템 업그레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업그레이드에 따른 개발 작업 - 오프라인 사용자 편의성에 맞는 키오스크 화면 구성 업그레이드 - 프로모션, 부분기능 업그레이드 - 투어/견학사업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업그레이드 - 출판도시 앱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p>■ 출판도시 앱 프로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홍보 전문 업체를 통한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 보물상자 찾기, 출판도시 방문 이벤트 등 오프라인 홍보 <p>■ 출판도시 안내시스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산업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 및 문의전화 증가 예상됨에 따라 최소 인력으로 효율적인 상담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개발 - 기존의 체험프로그램 예약 시스템과 연동하여 One-Stop 으로 상담 및 예약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p>■ 출판도시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센 건너편 산책로 시작점, 대신문화사 앞 녹지 한국학술정보원 앞 공원, 삼호뮤직 건너편 녹지에 조형물 설치 	
<p>■ 2015년 설치한 야외상설무대를 통해 출판도시 방문객과 인근지역을 위한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문화도시의 콘텐츠로 자리잡음.</p> <p>■ 2015년 개발된 앱에 출판도시만의 고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주사를 위한 프로모션 기능을 강화하여 앱 이용도를 높임.</p> <p>■ 안내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어 상담 및 체험 예약 관리, 출판도시관련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높임.</p>			

④ 출판산업 체험센터 구축

사업명	출판산업 체험센터 구축(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사업기간	2015.08.01~12.31									
총사업비	520,000천원									
	(국고 : 210,000천원 / 시비 : 210,000 / 자부담 : 100,000천원)									
집행액	519,474천원									
	(국고 : 209,737천원 / 시비 : 209,737천원 / 자부담 100,000천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산업 체험센터 체험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문화 및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체험강사가 바로 습득하고 수업이 가능한 교육 및 운영 매뉴얼, 시청각 자료, 교구 교재 개발 -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개발진 중 1-2인을 파견하여, 현장조사, 개발 결과물의 모니터링 및 강사 교육(특강) 등을 진행 -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시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방안 제시 ■ 출판산업체험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선정 이후에 체험센터 공사 2016.09.30. 개소식 									
사업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3,000명의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독서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함. ■ 최종보고서 50권, 해설시나리오 매뉴얼 50권, 콘텐츠별 워크북 총 3,000권, 진로보드게임 교구 제작 100세트, 교육 및 운영 매뉴얼 150부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80%에 좋았다고 응답함. ■ 2016년은 학생 86%, 교사 91%가 좋았다고 응답하여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교사 및 학생의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div>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caption>교사 및 학생의 체험프로그램 만족도</caption> <thead> <tr> <th>대상</th> <th>만족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교사</td> <td>0.91 (91%)</td> <td>0.09 (9%)</td> </tr> <tr> <td>학생</td> <td>0.86 (86%)</td> <td>0.14 (14%)</td> </tr> </tbody> </table>	대상	만족도	기타	교사	0.91 (91%)	0.09 (9%)	학생	0.86 (86%)	0.14 (14%)
대상	만족도	기타								
교사	0.91 (91%)	0.09 (9%)								
학생	0.86 (86%)	0.14 (14%)								
예산집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 문화공연 프로그램, 전용 앱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업데이트관련 사업, 습지생태공원(산책로)내 편의시설 조성사업, 출판도시 캐릭터 공모전, 투어사업 연구, 체험학교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적극 집행 									

⑤ 출판도시 벽화거리 조성사업

사업명	출판도시 벽화거리 조성사업(경기문화재단)
사업기간	2016.10.21.~2016.12.31
총사업비	5,000천원(지원금 4,500천원, 자부담 500천원)
집행액	4,710천원(지원금 4,210천원, 자부담 500천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참여단체 :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 후원 : 경기문화재단 ■ 조성장소 : 이채쇼핑몰 뒤 문발리 헌책방 거리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 환경개선과 문화콘텐츠 강화를 통한 출판도시 활성화에 기여 - 책방거리 활성화를 통한 출판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적 효과 창출 - 방문객 및 지역인근 주민들에게 출판도시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사업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상수 교장(타이포그래피 학교)을 주축으로 기획 및 디자인 작업 진행 - 파주출판도시 내 타이포그래피 학교 학생들이 조성 작업에 참여

⑥ 일·학습 병행제 사업

사업명	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 지원센터(문화체육관광부, 과주시)
사업기간	2016.06.01~12.31
총사업비	200,000천원 (국고 : 200,000천원)
집행액	178,963천원 (국고 : 178,963천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도시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발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발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사실무 및 운영위원회 운영 ■ 훈련직무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업종 특성에 맞는 표준 운영모델 개발,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참여 ■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근로자 채용지원, 기업현장 훈련지원, 컨설팅 제공, 내·외부평가의 참여 등 훈련 진행 전반을 지원 ■ 학습근로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근로자 고충 상담, 폐업 등에 따른 기업의 일학습병행제 중도포기로 인해 고용관계가 중단되는 학습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지원
사업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제특구지원센터 일학습병행제 사업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제특구지원센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23개사 - 도제특구지원센터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개발 : 23개 - 도제특구지원센터 일학습병행제 훈련실시 기업 : 21개사 ■ 훈련실시 학습근로자 수 : 36명 ■ 기업컨설팅 횟수 : 44회 ■ 기업의 학습근로자 채용 지원 횟수 : 10회 ■ 내·외부 평가지원 횟수 : 3회

⑦ 꿈의학교 사업

사업명	꿈의학교 사업(경기도교육청)										
사업기간	2016.05.27~2016.12.17										
총사업비	70,000천원 (경기도교육청 지원)										
집행액	69,957천원										
사업내용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성찰과 체험을 통한 자아탐색 및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관심분야를 심화시키고, 진로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 학생 주도적인 학습과정을 담은 결과물을 책의 형태로 만들어 출판도시 내에서 도서전시 및 각종 지역행사 등에서 전시, 홍보 및 판매까지 진행함으로써 자기주도개발에 대한 성취감 고취 및 자신감 함양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파주인근 중 고등학생 - 장소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임진초등학교 컴퓨터실 - 운영기간 : 2016.5.27~2016.12.17 - 사업주체 :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후원 : 경기도교육청 <p>■ 훈련직무 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종 특성에 맞는 표준 운영모델 개발 -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참여 <p>■ 기업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근로자 채용지원, 기업현장 훈련지원, 컨설팅 제공, 내·외부평가 참여 등 훈련 진행 전반을 지원 <p>■ 학습근로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근로자 고충 상담, 폐업 등에 따른 기업의 일학습 병행제 중도포기로 인해 고용관계가 중단되는 학습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지원 										
사업추진실적	<p>■ 사업 참여인원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인원(수)</th> </tr> </thead> <tbody> <tr> <td>모집</td> <td>54</td> </tr> <tr> <td>참여</td> <td>41</td> </tr> <tr> <td>최종</td> <td>41</td> </tr> <tr> <td>포기</td> <td>13</td> </tr> </tbody> </table>	구분	인원(수)	모집	54	참여	41	최종	41	포기	13
구분	인원(수)										
모집	54										
참여	41										
최종	41										
포기	13										

■ 주요프로그램

-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 5월 27일(금)
- 글쓰기 : 34회(A반 17회 / B반 17회)
- 특강 : 3회
- 체험 및 취재활동 : 32회(A반 16회 / B반 16회)
- 1박2일 꿈의학교 : 12월 16일~12월 17일
- 수료식 : 12월 17일 (토)

■ 취재활동

NO	취재활동대상	장소 및 대상
1	북디자이너	나승영(아트디렉터)
2	일러스트레이터	정지혜(일러스트레이터)
3	소설가	김선희(소설가)
4	작가	윤성근(작가)
5	미술관(박물관)큐레이터 만남	갤러리 박영
6	출판기획전문가	박세경(출판감독, 프리랜서)
7	출판사	효형출판사. 서해문집
8	인쇄사	보진재
9	교육공무원	파주교육지원청
10	영상제작전문가	MBC드림월드, 데몰리션스튜디오

■ 도서출간 :2,000권

- A반 책제목 : 더 드림(The Dream)-픽션과 논픽션 사이의 십대들-
- B반 책제목 : 10대를 털자-10대들의 이야기 총출동

■ 향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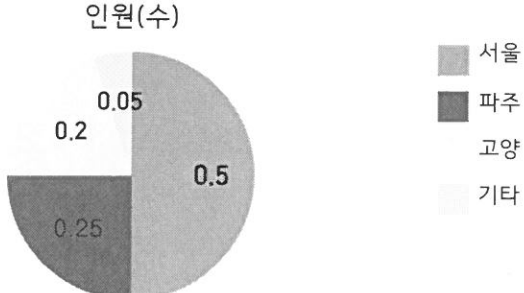
- 꿈의학교를 통해서 출판된 도서를 지혜의 숲 서점을 통해 판매
- 판매 수익금을 아이들 이름으로 기부하여 나눔을 체험할 기회 제공

■ 지역행사 참여

- 파주관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도서전시 및 홍보 체험

⑧ 출판도시 통근버스 운영 사업

사업명	출판도시 통근버스 운영사업(고용노동부, 파주시)	
사업기간	2016.08~12월	
총사업비	500,000천원 (국고 :450,000천원, 지방비 50,000천원)	
집행액	467,121천원(국고 :430,387천원, 지방비 :36,734천원)	
사업내용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출판도시)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 배용 절감, 인력난 해소 및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지원 - 출판도시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교하/운정 지구 및 금촌 등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출판도시 내 기업 근로자 출퇴근 편의제공을 위한 통근버스를 확대 운영 목적 <p>■ 추진개요</p>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계획수립 및 1차 수요조사 - 조사기간 : '16.5.11~5.18 - 조사내용 : 희망노선, 차량 수, 노선, 운행횟수 등 기초자료 수집 (117개사/1,831명)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1차 입찰공고 ('16.6.29~7.4) ○ 전세버스 실무담당자 채용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1차 입찰공고 유찰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2차 재입찰 공고 ('16.7.8~7.13)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2차 입찰공고 유찰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3차 수의계약 진행 결렬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4차 입찰 공고('16.7.27~8.1)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4차 입찰공고 유찰 ○ 2차 수요조사 - 조사기간 : '16.7.4~7.8 - 조사내용 : 1차 조사 근거로 통근버스 이용자 실 수요조사 실시 (83개사/992명)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7.14) ○ 3차 수요조사(최종) - 조사기간 : '16.7.18~7.20 - 조사내용 : 2차 조사 근거로 통근버스 이용자 실 수요조사 실시 (95개사/ 1,291명)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5차 입찰 공고('16.8.1~8.8)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5차 입찰공고 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6차 입찰 공고('16.8.10~8.16) ○ 서류적격심사 진행 후 미라클 투어 최종 낙찰 ○ 업체선정 이후 진행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통근버스 확정노선 안내 및 실 이용자 명단 접수 - 기존 정액권 환불 - 무료통근버스 시범운영 및 무료통근버스 카드발급 - 무료통근버스 운행 개시(2016.08.22(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통근버스 사업 운영 ○ 사업비 관리 및 운행노선 관리 ○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회사부담금 :50,000원 ○ 사용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용 버스카드 구입 :4,400,000원(500개) - 통신용 단말기 이용 (9월~12월 : 3,511,900원) - 나머지 지출금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출퇴근용 버스카드 구입, 통신비 단말기, 전세버스 임차비등 지출 예정 ○ 버스카드발급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 :1,291명 발급(9월 30일) - 추가발급 : 51명(10월 17일) 										
<p style="text-align: center;">9월 ~ 12월</p>	<p>■ 운행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운행대수 : 일 49대 (출근 31대, 퇴근 18대) - 총 운행일 : 91일(8.22~9.18 간 토, 일, 공휴일 제외 실 운행일수) - 버스카드 발급 인원 : 1,342명 - 버스 1대당 카드 발급 평균 : 43.2명(카드발급인원1,342명/ 출근 31대) - 버스 1대당 평균 탑승자 : 28명(아래 도표 참조) - 카드발급대비 탑승비율 : 64.8% - 총 근로자 수(약 8,000명) 대비 통근버스 이용률 : 16.8% <hr/> <p style="text-align: center;">출퇴근 지역 별 통근 버스 인원 비중</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원(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지역</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0.5</td> </tr> <tr> <td>파주</td> <td>0.25</td> </tr> <tr> <td>고양</td> <td>0.2</td> </tr> <tr> <td>기타</td> <td>0.05</td> </tr> </tbody> </table> </div>	지역	비중	서울	0.5	파주	0.25	고양	0.2	기타	0.05
지역	비중										
서울	0.5										
파주	0.25										
고양	0.2										
기타	0.05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추진실적</p>											

2. 입주공동체로서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

가. 출판산업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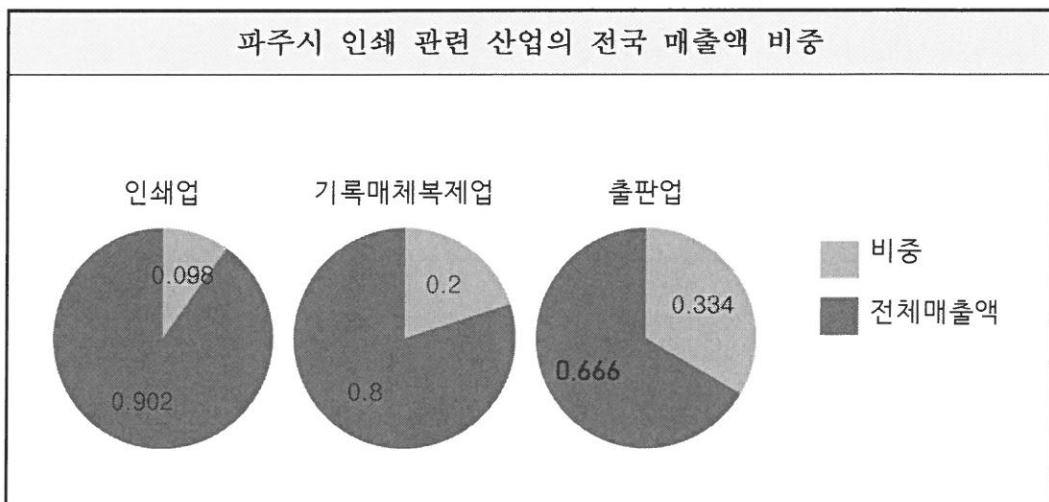
- 출판사, 인쇄소, 제본소, 저작권 에이전시, 출판 유통회사, 디자인회사 등 각종 출판관련 회사 3백여 업체가 입주한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협업과 경쟁을 통해 활발한 지식생산을 이루어 냄.
-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1단계에서 절감한 연간생산과 물류비용이 약 200억 원에 달함.

나. 출판산업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및 연매출 상승

- 현재 고용인원 6천 명, 연매출 1조 7천억 원을 달성함(2단계 완공 시, 고용인원이 1만 1천명, 연매출 3조 3천억 원 예상).

다. 인쇄 관련 산업분야에서 파주가 갖는 중요성 증대

-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9.8%, 기록매체복제업의 경우는 전국 매출액의 20.0%, 일반도서와 학습서적을 합한 출판시장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33.4%가 파주에서 발생하고 있음.



제3절 운영의 한계 및 시사점

1. 현 관리기관의 역할과 한계

1.1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지관리계획 추진실적 현황

가. 관리기본방향 추진실적

관 리 방 향	추진 현황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거시설, 지원상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구체적 실현계획 없음
합리적인 산업시설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한적 역할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수동적 역할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조성 계획 없음
생활편의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조합, 입주기업협의회 추진

나. 관리기본계획 추진실적

세 부 관 리 계 획		추진 현황
분양용지 관리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직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 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	획일적 관리
환경관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 유도	조성 계획 없음
안전관리	기타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유치 계획 없음

다.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
전문인력 육성	출판·영상관련 연구 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관련 계획 없음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활용을 지원 및 주부들의 취업지원	추진실적, 계획 없음
안전관리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과 입주업체 각종 행사에 활용	확보, 지원 계획 없음

1.2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

가. 사무 및 행정 지원 등 수동적 역할 수행

- 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단지 관리계획에 따른 행정 지원 역할만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입주자 모집 및 추천, 공공시설 유치, 건축심의, 마스터플랜 수립, 분양 수탁대행, 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사업 등 실제적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조합 및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나. 관리기관의 특성에 따른 한계성

- 출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시책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주관되는데 반해서 출판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기 때문에 정부 대행하여 출판도시의 입주기업을 지원하는데 제한이 있음.
- 파주출판도시의 관리는 입주기업 및 공급처리시설 관리 등 제조업 중심의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판도시의 특성을 살린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다. 업무의 관료화로 인한 출판단지의 발전성 저하

- 관리기관인 산단의 실제업무는 입주 사후관리이며 법적규정과 관리 매뉴얼 상 행정 사무적 업무 외에는 발전계획이나 단지관리를 위한 투자가 부재함.
- 기업의 입주 후, 산업 활동 감독과 지원업무 적시에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라. 정책적 차원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관리능력 저하

- 산자부나 산단 차원의 정책 및 예산이 없어 출판도시의 조성목적과 발전을 위한 계획이 전무한 실정임.

2. 시사점

가. 현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성 극복 필요

- 단지 내 평면/면적 중심의 구조적, 행정적인 단지관리 개념을 입체적, 연계적인 부가가치 창출 개념으로 전환해야 함.
- 산업단지공단의 문화산업에 대한 연계성 부족과 관료적 업무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판단지의 목적과 부합하는 관리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함.
- 출판도시가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형의 융통성 있는 관리가 필요함.

나. 출판산업단지의 특수성 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창조경제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국가 문화 산업단지로서 1단계 1조 6천억원의 매출기록에 이어, 2단계가 '17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향후 3조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 또한 2단계 단지에 기업체 300여개가 입주하여 향후 5천명의 상주 고용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일자리가 1,000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산단공은 제조업 위주 관리로 분양과 입주만 관리하나 파주출판산업단지는 국내 유일의 문화산업단지로 문화산업 활성화, 도서전 개최, 공동 문화 예술행사 및 시설운영, 국제교류, 독자유치, 박물관, 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가 필요함.

- 파주 2단계 단지 활성화를 위해 2단계 입주출판사와 관련된 도서 전시회, 독서 행사, 교육, 국제교류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기관 운영 지원이 필요함.



▲ 학생들에게 출판산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미래의 출판 직업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자 출판산업체험센터를 2016년 9월 30일 개관하였다.

▲ 2014년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집’은 산업단지형 어린이집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으며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3장 세계적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전환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

1.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성과

파주출판도시 조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둘째, 첨단 정보 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출판문화 창달을 위한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유통구조를 현대화한다.

셋째,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 이자 ‘세계적인 문화 관광명소’ 로 개발한다.

- ‘책을 위한 도시’ 를 만들겠다는 자발적인 발상으로 출판인이 조합을 결성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주출판도시는 **한국 출판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궤적을 만들어 옴.
- 단순히 동종 업체와 유관 업체들이 물리적으로 집적된 산업 클러스터가 아니라 출판과 영상과 디자인, 건축, 그리고 도시와 문화의 만남이라는 **입체적이고 상호상생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특수한 문화 생성단지**로 자리매김해 옴.
- 파주출판도시는 어느 국가산업단지와 다르게 최초 사업발의에서 단지개발과 조성, 분양과 입주에 이르기 까지 청사진을 그리고 실체를 조성하며 **민간주도의 사업공동체가 추진해 온 산업단지**로서 세계적으로 유일하며 국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음.

그 성과는 사업발의 당시에 조합원들이 밝힌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서 출발하고 있음.

“우리는 지혜로운 선인(先人)들의 공동체 문화를 오늘에 되살리고, 그 위에 책이라는 매체로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복시티라는 문화공동체를 소망했다. 오랜 세월 잊혀 왔던 향약(鄉約)의 정신과 원리를, 우리의 흐트러진 정신과 육체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유전자를 찾아내어 복원하는 심정으로 이 도시에 구현하고자 했다.”(파주책마을 이야기에서)

- 파주출판도시는 활자와 영상, 콘텐츠와 미디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원천과 응용의 융합을 통해 종합 미디어시티로 거듭날 것이며, 이와 같은 문화산업 인프라, 클러스터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국가 문화 성장 동력의 토대가 될 것임.
- 파주출판도시의 특징과 성과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50년의 성과와 발전 과제 - 2014년’ 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함.
 - ‘파주출판도시는 출판산업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출판, 인쇄, 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로서, 정부 주도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민간 주체의 자발적인 단지였다는 점에서, 여타 산업단지와는 차별성을 보임.
 - 현재 파주출판도시는 기존의 산업단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타 산업단지와는 다른 개성 있는 모습으로 조성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방문객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음.
 - ‘파주북시티’ 라고도 불리는 파주출판도시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세계적인 책의 도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문화산업도시, 세계 건축계에서 주목받는 건축전시장, 생태환경도시, 교육도시라는 5대 목표를 발전시키려 입주기업 중심으로 활발히 변화하고 있음.

2. 문화공동체로서의 자율적 계약 도시 형성

- 파주출판도시 조성의 최상위 가치는 ‘공동성의 실현’ 으로, 공동성이란 개별적인 욕망이 고립된 개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 이행하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개인과 전체가 비로소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힘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실천될 때만이 비로소 그 뜻이 살아남.
- 다음은 파주출판도시를 조성하면서 입주 기업들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기 전에 출판도시의 산업적 조성 목적을 이루는 것은 물론 단지 전체의 건축물들이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입주기업간의 약속이자 건축 설계자들과의 약속을 만들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고자 전 입주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든 자율적 계약서임. (요약)

“위대한 계약서”

우리는 이 땅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이 땅의 민족과 국가 앞에 숭고한 책의 가치를 드높이며 자랑스런 우리 건축문화의 전통을 되살려, 우리의 도시가 추진-건설되는 과정이나 완공된 이후의 현장과 시설이 출판문화의 중흥과 국민교육의 마당으로 쓰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건축가의 건축방식이나 여러 입주자의 다양한 산업행태—시설양식이 존중되면서, 이들이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기법과 지혜를 성실히 짜낼 것이다.

첫째, 건축가와 출판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각기 좋은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둘째, 출판도시의 바탕은 하나의 건축이다. 공동성과 개체성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이 도시는 성공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로이 다짐한다.

셋째, 출판인은 참다운 건축가의 이상을 받아들여 위대한 책의 생산공간은 마련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건축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다.

넷째, 건축가는 참다운 건축가로서의 소명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시대의 새로운 건축이 이곳에서 역사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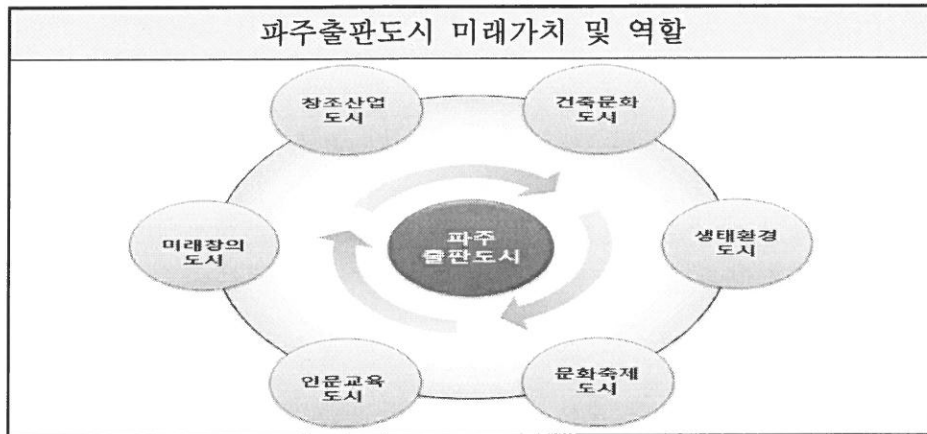
다섯째, 설계에 따르는 비용은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산출되어,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의 명예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000년 12월 2일

3.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목표

- 파주출판도시는 문화산업의 기능적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박물관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과정과 구성요소를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함.
- 단지는 뜻 그대로 단지이기도 하지만,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을 통제하는 보통의 단지와는 다른 환경적 국면을 보유. 특히 수도권 일대의 시민 및 전국의 방문자들을 상시 유치하는 개방적 환경이 되도록, 풍성한 조경과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옥외 공간의 쾌적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일종의 ‘문화공원’(culture park)’라는 형식을 보유하고 있음.
- 파주출판도시가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6가지 운영 방향은 앞으로 국내 여타

산업단지가 지향해야할 발전의 모델이 되는 한편, 지속 성장을 위해 추구해야할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보여 주고 있음.

- 1) 창조산업도시, 2) 건축문화도시, 3) 생태환경도시, 4) 문화축제도시,
- 5) 인문교육도시, 6) 미래창의도시



- 창조산업과 문화예술, 일상이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실현하는 것이 ‘지속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성숙’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자 과제로서 요청되고 있음.
- 이 같은 비전과 장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근 1, 2단계 추진주체를 통합하는 자치기구로서 2017년 8월 통합 입주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우리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천명함.

‘우리의 약속’

우리는 위대함으로 출판도시 일단계를 만들었고 선함으로 이단계를 완성해가고 있다. 우리는 절제, 균형, 조화, 그리고 인간애가 충만하길 바라며 ‘인간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스스로를 절제하며 이타의 마음가짐으로 ‘공동성의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제 ‘책의 도시’는 ‘책과 영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도시 건설을 시작한지 30년이 경과하는 지금, 첫 번째 약속을 실천했던 출판·인쇄인들과 두 번째 약속을 지켜나가는 영상, 소프트웨어, 그리고 예술가들이 출판도시의 완성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출판도시는 통일 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요한 근간이며 세계에서 주목하는 도시가 되었다.

통합된 입주기업협의회는 회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출판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며, 문화와 산업,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발전

을 위해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약속한다.

1. 출판인들의 꿈에서 시작된 도시의 목표를 존중하며, 출판과 영상 등 창의문화산업과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출판도시 관리기관의 권한을 이관받아 공동성의 실천으로 조성된 출판도시 일, 이 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3. 출판도시 입주기업 종사자의 문화산업 전문성 함양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강화한다.
4.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과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적극 개선하여 출판도시를 한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한다.
5. 도시 조성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변 자연 환경과 지역과의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2단계 조성 완성을 계기로 세계적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 파주출판영상도시는 다음과 같은 이념과 목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 “단순한 산업 클러스터의 단계를 넘어,
가장 고등한 형태로 진화한 첨단문화예술도시”
- “낮에만 활용되는 산업단지를 넘어, 365일, 24시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자연과 문화와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
- “문화와 예술이 상존하고, 도시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외부인들까지 언제나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를 만드는 것이 파주출판도시 완성의 기본 이념” 이라고 할 수 있음.

○ 파주출판도시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시의 성격을 ‘산업도시’에서 ‘문화 도시’로 명백히 재규정하여야 함. 또한 파주의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에서 파주를 글로벌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놓고 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2절 제4차 산업사회에서의 산업단지의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회의 변화

“성공한 도시는 사회의 라이프스타일과 생산과 소비 패턴의 급격한 발전과, 교통기술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과 지식을 끊임없이 창출한 도시이며 그렇지 못한 도시는 쇠락한다” 고 도시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준비에 몰입하고 지능과 연결을 키워드로 일어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공유 경제가 등장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인간과 지능기계 간의 연결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서로 연결을 증진함으로써 연결된 산업(connected industry)으로 발전하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공장도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화로 혁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때 붙일 수 있는 개념임. 4차 산업혁명 즉 과학기술 혁명은 교육 체계와 공공 부문 등 전 영역에서 사회적인 혁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가치 있게 인정되고 실현될 때 혁신이 이루어짐.
- 사회적 삶의 질(Quality of Social Life)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리더십이 요구됨.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혁명에 걸맞는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가 나서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장악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역할은 민간 영역에서 주도하면서 국가는 제도 및 시스템의 틀을 바꾸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운영하는 일을 추진해야 함.
- 이를테면 법과 통제와 관리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기회를 널리 펴도록 해야 함.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 우리나라 산업단지도 그동안 집중적이며 광역적인 생산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사회와 산업이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도약과 쇠락의 기로에 있음.

○ 이제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도시적, 문화적 기능의 도입과 통합이 절실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출판산업단지를 문화도시로 개념화하여 단지 기능의 복합화와 융합과 입주자/생산자 중심의 지원시설을 확대, 유치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운영과 관리의 기본 패러다임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함.

- (1) 단지 내 평면/면적 중심의 구조적, 행정적 단지관리 개념을 입체적/연계적 부가 가치 창출 개념으로 관리보다는 운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함.
- (2)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창조적 문화산업 단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기능적인 클러스터 구성을 목표로 유관 기업, 지원기관, 교육 연구기관을 유치하여야 함.
- (3) 국가산업단지로서 산업용지의 배분과 대상 업체의 입주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용지와 용도 차원의 관리가 아닌, 산업의 생산성과 입주자의 편익과 단지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과 운영차원에서 관리되어야함.

〈산업단지 관리 개념의 변화〉

구 분	산업단지의 ‘관리’ 개념			
개 념	관리=전통적 관리(협의)		지원=적극적 관리(광의)	
산업형태	제조업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관리업무	물리적관리	행정적관리	경영지원	혁신지원
관리대상	단지 기반시설	분양, 입주 등	자금, 인력, 물류, 정보화 등	R&D, Networking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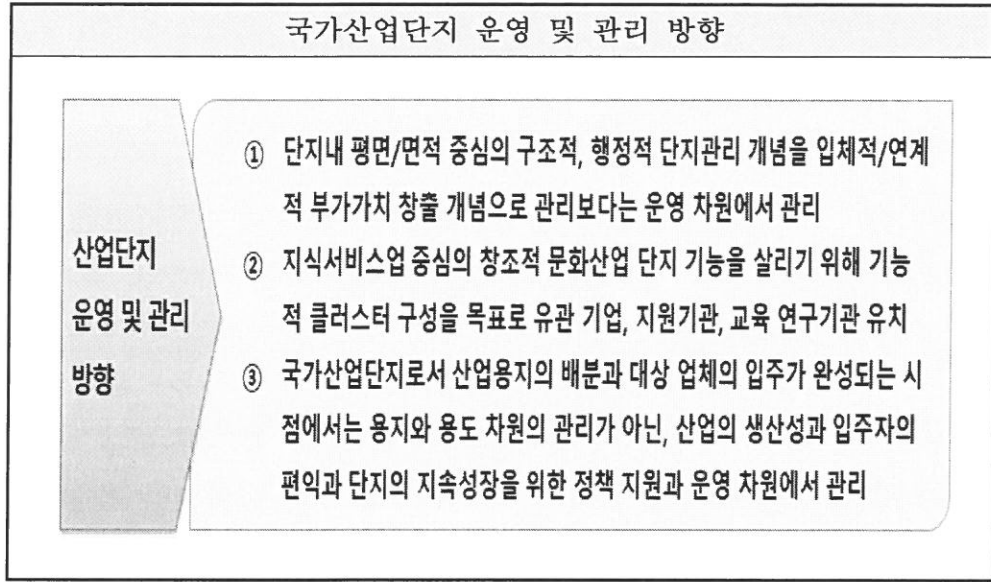
자료: (사)한국지역개발학회, 「산업단지 관리·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2007.2.(일부용어 변경)

2.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 산업단지의 변화 추세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이어 시대의 변화, 사회적 변화의 큰 흐름에 따라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속도와 풍요의 성장시대에서 안정, 삶의 질 향상, 저성장으로 나타나는 성숙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 성숙사회에서 산업단지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함. 장소 중심에서 사람 및 네트워크 중심으로, 통제와 관리에서 소통과 자율중심으로 변해야 함. 부지 면적 중심의 산업단지 개념을 입체적 개발로 확대하고 기능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
- 산업단지에서 문화산업도시, 지역 컨텍스트에서 글로벌 문화도시, 물리적인 시설보다 창조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시, 창조인력을 양성하고 교류시키는 도시, 새로운 문화 키워드를 창출하는 도시로 비전이 전환되어야 함.
-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 모델로는 창조문화도시 및 창조경제로 나아갈 수 없는바, 공공의 문화가치를 생산하고 확장해 나가며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관리, 운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시점임.
- 과거 단지에 적합한 요소 투입형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첨단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질적 성장으로 성장의 패턴이 변화하고,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산업구조도 고부가 가치화되고 있음.
- 산업의 융, 복합화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라 기존의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 연구개발, 문화 복지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혁신 창출 기능을 보완하여, 지식산업이 선순환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에 방향이 맞추어지고 있음. 이를 위해,
 - 기존 산업단지의 시설 인프라 환경을 개선
 - 생산기능 중심의 단지를 지식과 혁신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개선
 - 성장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공간으로 개선
 - 산업단지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입주기업 정책 혁신

나. 산업단지 관리 업무의 변화 추이



- 산업단지의 관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 유지와 경제적이고 사회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임.
-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종전의 ‘입주관리’ 중심의 전통적 관리에서 연관 산업과 신기술, 서비스산업이 융합, 집적되고 R&D지원, 경영컨설팅이 부가되는 혁신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Total Service’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체계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음.
- 위와 같은 변화 추세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다. 관리 업무의 필요성

- 국가의 기간산업과 미래 전략사업,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등 국가 주력 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국가 경쟁력 창출의 근간이 되어야 함.
- 한정된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성 극대화가 중요함.
-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목적은 양호한 생산여건과 산업 집적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관리권자는 입주를 통해 보다 안정적,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함.

- 업종별 불법 용도변경 방지, 분양 용지의 장기 방치 방지 등 입주 구획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
- 입주기업의 구조 변화, 업종 간 경계의 불명확화, 4차산업 등 다양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시기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적극적, 능동적 지원이 필요함.
- 해외 유사 문화도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 루르지구,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 지구, 프랑스 앙굴렘 등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박물관 및 관련 분야 센터의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각 지역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으며,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음. 특성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부 산하 각종 기관과 기업, 문화단체, 아티스트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는 물론, 내·외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개방성이라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음.

산업단지 관리 우수 사례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의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요건과 기준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산업입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요약

1. Organizational Features

- 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 환경, 사회, 경제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포괄적이며 유동적인 계획과 관리
- 관리기관에 명확한 권한과 예산 제공 필요
- 서비스 중심(one stop service)과 내부 및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킹 에이전트

2. Economic and Infrastructure Features

-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창출, 경제활동 증대에 기여
- 물류시설, 에너지 시설, 폐기물 예방 및 처리, 폐수 관리 등 인프라 시설 확보

3. Environmental Features

- 환경 관리 법과 기준 준수
- 자원 효율과 산업 공생共生, 에너지 효율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4. Social Features

- 교육, 문화, 의료, 관광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 노동 기준과 위생, 종업원 주거시설 확보

3. 파주출판도시 운영관리 개선 방향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란 단순히 시민들의 문화적 접촉이 증가한다는 것을 넘어서 문화적 역량이 곧 한 국가, 한 도시의 경쟁력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지금이 바로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계기로 문화를 화두로 한 본격적인 산업단지 정책목표와 이와 연계된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성공적인 문화도시 비전을 찾아야 함.

파주출판도시는 토지 배분, 즉 단지의 평면적 관리와 운영, 공간과 건축물은 어느 단지보다도 우수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입체적,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에 의한 3, 4차원적 운영과 구조고도화 발전 방향성을 탐구하고, 입주기업체들만이 활동하는 제조와 생산만의 외판 ‘섬’이 아니라 인문적 만남과 교류, 모든 이해관계자와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 동반하는 대지/문화공원이 되어야 함.

가. 비제조업으로서의 파주출판도시 변화 방향

- 지식서비스업은 도심지향적이고, 정보, 고급인력, 생활환경 등의 **소프트 인프라**가 중요하며, 오피스 형태의 공간을 선호하므로 맞춤형 입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산업구조가 고도화함에 따라 **기존 산업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신산업**(예시 : 4차산업 등)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비제조업의 입주 허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함.
- 제조업과의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식서비스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네트워킹을 확대**하여야 함.
-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산집법 규정에 의해 2018년도가 착공 20년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창조, 지식단지로서의 파주출판도시 과제

- 파주출판도시는 국가산업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출판을 중심으로 한 지식 생산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복합단지로서 **여타의 국가 산업단지와는 다른 차원의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이 필요함.
- 파주출판도시는 산업단지 법률에 따르는 산업도시이나 지식 콘텐츠 산업의 중심 기지로서 **문화 산업도시**로 나아가야 함. 초기의 건설 계획안에 이러한 미래 발전

방향이 내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단지 법률의 여러 제약요건들로 인해 문화도시로의 정체성 확보와 활발한 문화콘텐츠 생산에 적지 않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음.

-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 위에 새로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획득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시 성격을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명백히 재규정하여야 함.
- 세계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주출판도시의 독특한 실험이 보다 의미 있게 파주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에서 파주를 글로벌한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놓고 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젊고 창의적인 인재가 찾아와서 일하고 싶은 도시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시 내에서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고 교류시키는 장이 되어야하고, 창의적 인재들에게 열려 있는 개방적인 도시가 되어야 함.
- 동시에 지식 생산과 유통, 교육의 플랫폼이 되어야 함. 어린이 관람객 중심으로 편중된 출판도시의 공간과 프로그램은 성숙한 시민을 위한 지성적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야 함.
- 문화적 어메니티, 장소의 다양성, 첨단서비스 체계, 거주여건, 설 수 있는 문화환경 등 우수한 질의 창조적 생활공간 조성되어야 함.
- 문화 매니아 층이 형성되어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긴 시간 체류하며 사색하는 힐링 도시로 나아갈 때라야 문화적 수요를 따라가는 도시에서 새로운 문화적 키워드를 창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자기만의 색깔로 새로운 문화적 키워드와 담론을 만들어내는 도시, 거기에 파주출판도시의 미래가 있을 것임.

제3절 관리기관 전환 및 당위성

1. 파주출판도시 관리기관 위탁 배경과 과정

- 파주출판도시의 공식 명칭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개발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법률상의 국가산업단지임.
- 파주출판도시는 1997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됨.
- 이후 1998년 7월 산업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시 사전 협의와 고시권을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관리권자로 위탁하였음.
- 출판도시 관리기관 문제는 조성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관리권한 위탁 시점에서 상당한 토론과 정책 검토를 통해, 1998년 8월 26일 잠정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지정하게 되었음.
- 당시 관리권 이원화 문제가 지적되고 산업단지 조성 발의자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산업용지 분양과 입주기업 모집의 전문성 등의 이유가 있었음.
- 이후 2007년 1단계 단지 완성을 선언하는 시점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1단계 입주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여 관리기관이 되고자 했으나, 국회의 동의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법에 의한 관리방침과 민간 기구에 의해 공적 업무를 위탁하기에는 관리업무 수탁 역량 검증이 필요하고 당시 2단계 단지 분양이 진행되는 시점이라는 관리권자의 판단으로 무산되었음.
- 이에 따라 당시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대신에 ‘체’라는 단어를 빼고 입주기업협의회를 설립함.

2. 현 관리기관의 한계와 관리업무의 변화

가. 파주출판도시 관리 체계의 문제점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궁극적 목적 수행과 국가산업 발전의 기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사회와 산업구조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 성장이라는 보다 큰 과제를 수행하고 성취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그 관리업무 뿐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보다 중요함.

파주출판도시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화산업단지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화산업이 갖는 변화성, 다양성, 유연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출판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단지 관리업무는 법에서 정한 규제와 제도라는 틀 안에서 충실히 수행하는 관료적인 업무이고, 단순 사실적 행위인 행정작용이며, 업무는 사전사후 지휘, 감독이란 통제를 받게 되는 업무인 바, 창의적이거나 역동적이기 보다는 획일적, 관례적이며 보수적인 업무임.
- 협동화사업으로 단지 개발과 조성을 발의한 조직이, 조성, 분양 등 법적통제와 지원이 필요했고 법적 조직체의 관리가 불가피한 단계에서 진척되어 이제 완성 시점에서는 위에서 말한 관리업무체제에서 변화하여 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사업 발의자가 최초 개발 목적을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임.
-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파주출판도시의 성장을 위한 자원이라기보다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음. 최근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파주출판도시 약점 중 하나로 3개 단체가 관여하는 사업주체의 복잡성을 지적한 바 있음. 실제로 입주기업의 다수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현행 관리기구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체하여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함.
-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입주기업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업무가 중복 수행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음. 법적인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사와 입주기업체의 대표기관인 입주기업협의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 절차가 별도로 필요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입주기업협의회는 공식적 관리기관이 아니어서 공신력과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입주기업협의회는 법적 권한의 부족으로 산업단지 운영에 있어 입주업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단지관리계획 추진실적 현황

□ 관리기본방향

- 단지 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거시설, 지원상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함.
-> 구체적 실현 계획 없음
- 합리적인 산업시설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제한적
-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을 전개함.
-> 수동적
-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환경 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함.
-> 조성 계획 없음
- 생활편의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를 도모함.
-> 조합,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추진

□ 관리기본계획

1) 목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처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강화함.

2) 세부관리계획

① 분양용지의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를 진행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 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 1, 2항 **확일적 관리**

② 환경관리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조성 계획 없음**

③ 안전관리

-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함.
-> **유치 계획 없음**

3)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 출판·영상관련 연구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함.
-> **관련 계획 없음**

4)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을 도모함.
-> **추진 실적, 계획 없음**
-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확보, 지원 계획 없음**

다. 현 관리기관 산단과 입주기업협의회/조합의 역할과 실적

1) 조성계획 수행, 분양, 입주 업무

- ① 업무 내용 : 단지관리계획에 따른 분양, 입주 관리
- ② 업무 수행 : (역할 분담)
 - 산단 :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에 따른 사무 및 행정 지원
 - 조합 : 입주자 모집 및 추천, 공공시설 유치, 건축 심의 등 자율적 도시/단지 조성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분양 수탁대행 등

2) 입주기업 지원사업

- ① 업무 내용 : 복지후생 지원(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체육시설 등)
- ② 업무 수행 :
 - 산단 : 실적이나 계획이 없음
 - 입주기업협의회 : 단지 청소 등 도시 관리, 시설공동관리, 방문객투어, 책방 거리조성, 공동직장 보육시설운영, 문화사업(파주북소리 축제) 등 수행

3) 단지 특성화 사업

- ① 업무 내용 : 출판문화진흥사업, 문화시설 유치 등
- ② 업무 수행 :
 - 산단 : 실적이나 계획이 없음
 - 조합, 입주기업협의회 : 출판도시문화재단 설립,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파주북소리축제 연례 개최 등
 - 위와 같이 단지 조성, 관리에 있어 현 관리기관의 역할과 수행 실적을 보면 분양, 입주업무의 단순 행정과 절차상 사무처리 기능 외에 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거나 향후 추진할 기능과 계획은 전무한 실정임.
 - 입주자 모집과 공공시설의 유치, 입주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문화산업 단지로서의 특성화 사업과 도시 운영 프로그램은 거의 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에 의해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 모집과 계약 업무 외에 입주기업체 편의 및 경영지원과 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 단지 조성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하나, 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계약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용지 관리라는 행정 사무적 업무 외에는 뚜렷한 발전 계획이나 단지 관리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입주기업을 위한 편의지원 사업과 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과 문화 프로그램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맡고 있어 한 단지에 두 개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
- 관리기관으로서 산단공이 실제 수행해야할 업무는 입주 사후관리(산업집적법과 관리계획에 의한 사후관리와 지원 사업)이나, 사후관리는 법적 규정과 관리 매뉴얼에 의한 단순 사무에 그치며 지원 사업이나 도시/단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이나 지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산자부나 산단에서 이를 수행할 정책이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 상황임.

5) 입주사의 산단공과 입주계약 위반 사례

① 산단공과 체결한 입주계약 위반 사례

- 미인가 업종(디자인 등) 회사에 대한 임대 목인되어 왔음.
- 임대사의 경우 대부분이 산단공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건물주도 임대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

② 관리기본계획 위반 유형

구 분	유 형	회사명
1단계	도소매업(가구 등) 임대	** 매트리스, ** 디자인 샵, ** 쇼파 등
	북 카페 운영주최 상이	** 고서점, ** 프레스, ** 플라워
2단계	도소매업(가구 등) 임대	** 주얼리 샵, ** 가구, ** 가방 등
	북 카페 운영주최 상이	** 아트+카페

- 건축주가 사옥건축 허가를 파주시에 신청하면 파주시는 관련 도면에 대한 산단공 회람을 거쳐 산단공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사옥건축을 허가하고 있음.
- 산단공은 행정 절차상 입주계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조합의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입장임.

구 분	회사명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분에 대한 건축심의 미준수 : 세원아이씨케이(밀크북), 한국학술정보(신축) 등 • 건축심의 미준수 : 샘터사, 국일미디어, 현대고시사, 조우니, 삼성BCM, 예일프라자, 현대고시사, 프리벨 등 • 대부분의 상가는 조합의 건축심의를 받지 않음.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너스프린팅(3차 처분공고)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상가는 조합의 건축심의를 받지 않음. • 2단계의 경우 1단계와 달리 산업시설의 비조합사가 발생함. • 청운이엔지(경매), 성지정보기술(공매), 파파드림(3차 처분공고) 등

- 행정 기관의 한계로 인해 조합의 건축지침 미 준수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2단계의 경우 소유권 이전 후 2년 내 미착공사에 대한 산업용지 환수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공문을 발송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함.
- 현재 2단계 내 소유권 이전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옥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회사는 17개사이며 이로 인해 2단계 완성이 지체되고 있음.

3. 관리기관 전환의 시기성과 당위성

가. 관리기관 전환의 전제 조건

<p>과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사업, 산업단지의 합법적 관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량과, 도덕성, 통제력, 문화 이해와 비전을 보유해야 하며 특히 단지 입주자들의 구심적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입주기업협의회 및 관련 조직의 관리업무 역량 보유 여부 확인 ▪ 법적 공적 수탁업무를 담당할 투명성과 도덕성 확보 여부 검증 ▪ 단지 조성 목적과 기능을 저해, 훼손할 경우 사전사후 통제 장치 구축 ▪ 문화산업단지로서 국가문화정책을 수용하고, 중장기마스터플랜과 미션을 수행할 역동성과 비전 보유 ▪ 지속성장 가능한 단지로 관리, 운영할 입주기업체의 공동체 의식 보유

- 출판단지 최초 발의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30여 년간 헌신적으로 기획, 정책 개발, 상위 환경의 해결, 조합원 결성과 공동체 형성 등 출판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사업협동조합 이기웅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제시하고 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해왔던 그동안의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엄격했으며, 실은 그래야만 한다. 원칙에 따라 엄격해야 하지만, 그러나 한편 현실에 맞도록 유연해야 한다. 국가의 여러 혜택 속에서 올바른 산업활동을 약속한 입주자들이 입주한 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감독하는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당초의 취지대로 중소 기업체들이 입주한 다음 제대로 산업활동을 하는가, 도와줄 일은 없는가를 수시로 살펴 보고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관리기관일 터이다.

이 도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켜온 “산업단지의 무미건조한 조성형태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풍성한 문화산업도시로서의 출판도시를 지향한다” 는 취지를 살리고, 최근 출판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출판산업의 존재양식이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침이 옛 형식으로부터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한 서로가 충돌해 (관리지침과 입주자 사이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은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의 “관리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협의회” 로 하루 빨리 정착되고,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관리지침을 정비할 뿐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도 방치해 놓고 있는 실태를 조리 있게 정리정돈하여 정부를 향해 시정을 요구하는 일을 준비해 왔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관리뿐 아니라 출판단지 조성 초기에 수립했던 건축설계지침, 도시의 사인지침, 조경지침 등을 지키게 하고, 입주자들의 부당한 활동이나 편법과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재산권행사 등을 제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성공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돕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

나.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기관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

- 현행 법규와 산업 진흥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통제와 규제를 하되, 행정의 재량권을 획일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창조적 문화산업단지 완성을 위한 합목적적 발전적 통제, 요령 있는 운영과 선도(先導)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갖추어야 함.
- 다음과 같은 관리기관으로서의 자격 및 요건 검증을 통해, 현 관리기관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최초 발의 및 개발자인 협동화 사업자들과 분양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기관으로서의 자격 및 실적을 쌓아온 것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파주출판도시 조성 당초 목적 구현을 통해, 단지의 지속 성장과, 역동적이고도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의 창조적 전형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역할을 맡겨야 함.

입주기업협회의 관리기관 지정 당위성

사업 완성 단계의 시기성 (時機性)	1단계 완성, 2단계 입주기업 계약/분양 완료, 2단계 100% 진척(준공입주 및 시공 중, 설계 기준)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음
현 관리체계의 한계성 (限界性)	산업단지공단의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직된 일률적 체제로, 문화산업 단지 완성에 저해(阻害)요인이 되고 있음
자율적 관리 능력 성숙성 (成熟性)	1991년 사업협동조합 설립, 2003년 출판도시문화재단 설립, 2007년 입주기업협의회 설립 등 출판도시의 관리 노하우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지속성장 미래 지향성 (志向性)	변화하는 사회 및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전과 철학을 담을 수 있는 민간 주도형의 융통성 있는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단지 관리기관 전환 여건 성숙과, 특히 단지 조성 단계에서 실현한 위대한 계약, 선한 계약 등에서 보듯, 이미 입주업체들은 문화공동체로서 자율적으로 단지 조성의 세계적인 건축물 성과와 공간 문화를 이루어 낸 바 있으므로, 비전문 분야이면서 일률화된 현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정책, 경직된 인력, 타성적 업무의 관료적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과 독창성에 의한 세계적 문화산업단지의 모델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기관 전환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관리기관 업무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

관리업무는 관련 법과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사무의 집행이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 산업집적법, 령, 규칙, 지침, 관리기본계획 등
2. 공익성보다 능률성, 전문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입주기업의 현장성, 즉시성, 이해도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출판문화, 정보산업 등 문화산업의 특성 이해
4. 입주기업 경영과 직결된 행정사무
-> 입주기업체의 경영과 산업활동에 직결.

행정기관은 위와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행정기관이 사무를 민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관련 규정과 단지관리기본계획과 관리지침에 의해 업무의 방향과 내용, 의사결정의 한계, 사전 사후 협의 및 통제와 감사 등 적절한 규제 조치와 안전장치가 이미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관리권자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제4절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1.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관 전환 사유

- 제3절 관리기관 전환 및 당위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전환하여 관리기관이 되어야 하는 사유와 당위성, 시기성을 검증하였음.
- 1998년 정책 결정 당시 산업단지공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갖는 장점은 입주 업무의 전문성, 곧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지닌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현 시점에서 1, 2단계 입주 업무는 완료되었고, 입주기업체협의회에 90%이상 가입되었음.
-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갖는 단점(구성 목적 구현 한계성과 감독의 이원화) 곧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갖는 장점(관료적 관리 배제, 일원화 가능, 구성 목적 구현 주체, 산업계와 정부관서와의 소통)으로 해소되는 것 인바, 위 입주기업체의 단점이 해소되는 현 시점에서 산업관리공단의 단점을 해소하고 입주기업체의 장점을 살려야 하는 것은 필연적 과제임.
- 관리비용 부담 등 재정자립계획 문제는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와 운영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2.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 **현행 관리체계**
 - 산업단지 지정권자/고시권자 : 산업통상부 장관
 - 관리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 파주시사)

- **관리체계 변경(안)**
 - 산업단지 지정권자/고시권자 : 산업통상부 장관
 - 관리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관리기관 : 입주기업체협의회

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근거

□ 법 제30조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 법 제31조

-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 등“이라 한다)는 법인(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입주기업체 설립 절차

- 현 입주기업체협의회와 2단계 조합 통합 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명칭과 정관 개정 후,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준비함.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 요건은 입주자(임대 입주자 포함)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원사에 임대로 입주한 기업은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정관 제8조)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단,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임대입주자 현황(산단공 관리)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파악해야 함) 또한 비회원사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파주출판도시의 미래와 입주사의 발전이 일체라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노력이 바람직함.
-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인가를 신청함(지정권자 산업통상부와 사전 협의).

다. 입주기업체 설립 요건

□ 시행령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규칙 28조 참조)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 시행령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 규칙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 규칙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생략)

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시행령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자 중에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입주기업체협의회의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17년 8월10일 1단계 입주기업과 2단계 입주기업이 총회를 열어 통합 입주기업협의회의를 결성하였다. 입주사들은 1, 2단계 통합 입주기업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2016년부터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4장 결론

제1절 파주출판도시 ‘자치기구’ 설립 및 입주기업체 의견

1. 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 통합 ‘자치기구’ 설립

파주출판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과 1단계 사업 입주기업으로 설립한 입주기업협의회는 2단계 사업 완성 시점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 결성을 통해 관리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논의와 사전 절차를 거침. 2016년 2월부터 자치기구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11차의 합동회의와 양측 총회의 승인으로 ‘자치기구 통합’을 결정하고, 지난 8월10일 합동 총회를 거쳐 통합입주기업협의회를 결성하였음. 이번 통합은 도시 조성 과정에서 ‘비로소 파주출판도시가 완전한 모양’을 갖췄다는 의미이며 자율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바탕과 계기를 만드는 매우 중대한 절차를 완료한 것임.

□ ‘자치기구’가 관리기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 출판도시는 유일한 문화산업단지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리권자가 돼야 한다는 당시 조합의 건의에 따라 199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시권한을 제외한 관리권한을 위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리권자가 됨.
- 당시 도시 조성 초창기이므로 조합사들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여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시적으로 관리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였음.
- 2006년 9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여 관리기관 업무를 이관 받고자 당정협의를 통해 출판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으나, 아직 2단계가 진행 중이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아닌 ‘체’가 빠진 입주기업협의회로 설립되었음.
- 이제 2단계가 완성되어지고, 자치기구로서 통합입주기업협의회가 탄생되었으므로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관리기본계획은 변해야 함.
- 이를 위해 “관리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체계를 마련하여 입주사 편의를 위한 관리와, 건축설계지침, 옥외광고물 및 조경지침 등을 지키고, 입주자들의 부당한 활동이나 편법과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버린 산업용지 관리를 제어하며, 도시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2. 입주기업협의회 경영자 및 입주기업체 의견

과주출판도시가 관리기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관리기관이 되었을 때 하여야 할 일에 대해 설문을 통해 입주기업협의회와 조합의 경영자와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조사하였음.(부록 참조)

□ 김승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생능출판사 사장)

- 대부분 회원사들은 그동안 산단공의 역할이 미약했기 때문에 입주사의 보다 발전을 위한 지원과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과 입주사의 고층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리기관이 되기를 희망함.
- 산단공은 그동안 토지 관리와 건축허가 중심의 평면적 관리에만 역할을 맡았으나, 이제 현 단계에서 입주기업들은 공동체로서 스스로 관리를 통해 처음 약속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조화, 융합되는 입체적 운영관리를 열망하고 있음.

□ 이 은 조합 이사장(명필름 대표이사, 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 관리기관이 되면, 과주출판도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적 인프라를 보장하고, 출판, 인쇄 뿐 아니라 영화 디자인 건축 미술 분야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 영역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
- 입주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 혜택이 결국 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유인책이 되면서 방문객들이 문화를 감상하고 인문학적 동기를 얻어가도록 하겠음.
- 그동안 산단공과의 협조체계, 예산지원이 부족했지만 관리기관이 되면 국가산업단지를 공동 발전시켜야하는 과제에 대해 역할 분담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쌓아 나가겠음.
- 입주기업체 대표자 모두가 합심하고 단결하여 입주자와 내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음.

□ 이기웅 입주기업협의회 명예회장(열화당 대표이사, 전 조합 이사장)

- 30여 년 전 우리는 한국 출판문화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적절한 산업배치를 구현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출판도시 건설을 계획하였고, 이제 도시는 훼손된 인간성을 복원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공동체의 가치 구현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도시 디자인과 건축지침에 담아 현재에 이르렀음.
- 일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모은 문화시설분담금을 토대로 건립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문화재단’은 문화도시로서 출판도시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일단계 조합원의 출자금과 건설지체상금을 재산으로 ‘입주기업협의회’를 2007년 2월에 창립하여 도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하였음.
- ‘이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향점을 품고 가는가?’와 ‘어떻게 함께 나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의 답’으로서 자치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로서 비전과 그에 따른 사업범위를 결정하고, 어떤 도시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
- 둘째. 전문가가 중심이 된 자치기구의 능력을 확보하여, 사업의 집행은 전문가들에게 일임하여 ‘공동성의 가치’를 보존해야 함.
- 셋째. 입주사들의 이업종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도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고 확산할 조직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이환구 1, 2단계 조합 상임이사

- 출판도시는 협동화사업자들의 주문에 따라 조성된 국내유일의 국가문화산업 특성화단지인 만큼 입주자의 대표기구인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기관이 되어야 하고, 입주기업협의회 소속으로 (가칭)출판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시설관리조직을 설치하여 출판도시 내 개별 건축물의 하자보수 및 시설유지관리, 주차단속, 도시청소, 수로(샛강)관리, 가로수관리 등을 일괄 처리토록 하여야 함.
- 입주기업이 자기 사옥에 책방 및 문화공간을 설치할 경우 공간의 20~30%를 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상업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출판도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교통망 확충, 출판도시의 유·무형 콘텐츠 정보를 집약하는 온라인 툴 개발, 스마트시티 구축, 창조적 인재를 배출하는 아카데미 중심의 대안문화교육 도입 등의 소프트 인프라를 보강해야 함.

제2절 결 론 : 관리체계 전환 방안

1. 연구 결론

■ 현 통합입주기업협의회를 관리기관으로 전환

- 개요 : 관리기관을 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위탁 변경
- 절차 : 현 입주기업협의회를가 산집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구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권자의 법인 설립 승인을 구함.
(고시권자 산업통상부 장관과 사전 협의)

2.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 관리기관은 산집법 시행령 제59조3항에서 “법 제31조에 의한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시행령 제59조4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에 위탁한다.”
- 시행령 제59조 4항에서 정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한대로, 파주출판도시의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업무를 법 제30조 2항에서 정한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현 완성 단계에서, 파주출판도시를 문화산업단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 성숙시키기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을 승인하여 관리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3.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관 위탁 장점

- 문화산업단지로서 관리권자의 정책에 따라 자율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함.
- 산집법 제31조, 44조 등에 의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비 지원이 가능함.

4. 관리기관으로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준비할 사항

- 정관 개정 : 관리권자가 추천하는 특별회원과 정회원이 운영하는 계열회사 및 임대 입주 기업을 준회원으로 하는 회원 규정 신설
- 기구 개편 및 인력 확보 : 사무 조직에 현 관리기관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부서 설치와 소요 인력 확보
- 운영계획 수립 : 관리기관으로 전환되었을 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계획 수립
- 입주기업체(정회원, 준회원) 90% 이상의 관리기관 전환 동의서 확보
- 관리기관의 단기, 중장기 마스터플랜(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 수립
- 기타 관련 법규에 맞도록 관련 관리기본계획, 정관, 규정 신설 및 개정

5. 관리체계 전환 타당성 근거(요약)

가. 관리기관 위탁 주요 경위

- 1998년 과주출판도시는 유일한 국가 문화산업단지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시권한을 제외한 관리권한을 위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리권자가 되었음.
- 당시 도시 조성이 초창기이므로 조합사들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여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시적으로 관리업무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였음.
- 2006년 9월 ‘입주기업(체)협의회’ 를 설립하여 관리기관 업무를 이관 받고자 했으나, 2단계가 진행 중이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되었음.
- 협의회는 약 10년간 문화산업단지로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단지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7년 8월, 1, 2단계 입주기업들은 통합 자치기구인 ‘통합입주기업협의회’ 를 설립하여, 관리기관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

나.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변화 추세

- 산업단지는 장소 중심에서 사람과 네트워크 중심으로, 통제와 관리에서 소통과 자율 중심으로 변해야 하며, 활동과 기능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
-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 모델로는 문화산업도시로 나아갈 수 없는바, 공공의 문화 가치를 생산하고, 국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리, 운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시점임.
- 산업의 융, 복합화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라 연구개발, 문화 복지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혁신 창출 기능을 보완하여, 지식산업이 선순환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추세임.
- 단지 내 평면/면적 중심의 구조적, 행정적 단지관리 개념을 입체적/연계적 부가가치 창출 개념으로 관리보다는 운영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함(이상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산단공 연구논문 요약).

다. 입주기업협의회 관리기관의 될 당위성

- 사업 완성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성^{時機性} 도래
1단계 완성, 2단계 입주기업 분양 완료(입주 90% 이상)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음.
- 현 관리체계의 한계성^{限界性} 극복
산단공은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일률적 체제로 도시 발전과 성숙에 저해阻
害요인임.
- 공동체로서 관리 능력 성숙^{成熟} 과 자율성^{自律性} 확보
그 동안 법규 및 국가정책 이해와, 단지 운영 노하우 축적과 공동체로서 자율성
이 형성되어 있음.
- 입주기업 지원, 단지특성화 사업 수행 실적 축적^{蓄積}
산단공이(실적이나 계획이 없음)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공동관리, 방문객투어, 책
방거리 조성, 공동보육시설 운영과 파주북소리 축제, 출판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
고 있음.

라. 파주출판도시의 미래지향 비전과 목표

- 출판과 영상, 콘텐츠와 미디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원천과 응용의 융합을 통해

종합 미디어시티로서 1) 문화산업도시 2) 건축문화도시 3) 생태환경도시 4) 예술 축제도시 5) 교육도시 6) 미래창의도시라는 6대 목표를 발전시켜 국가 문화 성장 동력의 토대가 될 것임.

- ‘지속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성숙’ 이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외부인들 까지 언제나 문화와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원이자 문화산업도시를 실현하는 것임.
- 도시의 성격을 ‘제조산업단지’ 에서 ‘문화산업단지’ 로 명백히 재규정하고 토지의 평면관리에서 도시의 입체관리로 변화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꿀 리더십이 요구되며 공공 부문 등 전 영역에서 사회적 혁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걸맞는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음.



▲ 파주출판도시 1단계 전경: 전국 41개 국가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개발한 파주출판도시는 1990년대부터 국내외 우수 건축가와 협의하여 도시 디자인 및 건축 지침을 마련하여 독창적인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하여 ‘건축전시장’ 으로 불리고 있다. 우측에 파주도시문화재단이 건립하여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 지원과 국내, 외 출판문화 관련 정보교류와 문화 행사의 중심역할을 맡고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지지향이 자리잡고 있다.

<부 록 1> 「산업집적법」 근거 관련 조항

1. 관리기관 위탁에 관한 조항

법 제30조(관리권자 등)

-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호 생략)
-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법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법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 ③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 ④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관리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법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⑨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협의회 포함 <신설 2016.1.27.>

법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 록 2〉 「관리기관 체계 혁신 방안 연구」에 대한 자문 질의와 답변

〈조함과 협의회 관리자 의견 취합〉

1. 파주출판도시는 국가산업단지라는 법규와 행정적 규제 차원의 평면적 토지 관리 외에, 문화산업단지로서 파주출판도시의 미션과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입체적 목적 사업이 더욱 필요한 문화도시적, 창조적 단지입니다.

〈질문 1-가〉 착수부터 현재까지 관리기관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동안 단지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무엇이며, 관리기본계획에 정해진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례 중심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답 1〉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조업 지원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에 충실했음.

-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파주출판도시를 산집법과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분양 용지 관리와 공장 설립 인허가 등의 법적 규정과 제도에 의한 사무적 관리 업무에만 치중해 왔음.

〈답 2〉 비제조업 중심의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제도적 지원 실적 전무함

- 그러나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환경관리, 안전관리, 생산활동 기반구축, 근로자복지후생지원 등의 사업과 문화산업단지로서의 특성화를 위한 문화사업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관리함.

관련 사례 : 오송생명과학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관리기관 제주개발센터 자체 설립) 대덕 등 연구단지는 특별법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수요대로 지원되고 있음

〈답 3〉 산단공이 관리기본계획에 정해진 일들을 하지 못한 사항

- 단지 내 공공지원 시설(관리청사, 파출소, 소방서, 동사무소, 기타공공지원시설) 유치를 위한 적극 노력이 없음.
- 단지 인근 환경(각종 오염물질 등)을 관리하지 않아 오폐수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
- 입주사의 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한 바 없음.
- 산업단지 관리의 핵심은 인접 입주사 간의 민원중재 역할이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성격의 산단공은 오히려 해결을 위한 적극 개입을 꺼려 단지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함.

<질문 1-나> 조합이 입주사 선정(분양)과 관리 외에, 그리고 협의회가 출판도시로서의 구조조성과 문화적 기능과 이미지/브랜드 형성에 기여한 사업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 입주기업협회의 대부분의 사업은 입주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형성과 연계하기에 어려움(ex. 출퇴근 셔틀버스 등).
- 또한 일학습 병행제 등 국고지원사업을 주로 수행하여 출판도시만의 자체 브랜드 형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없음.
- 파주북소리 행사를 개최했으나 발생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출판도시문화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함.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는 건축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기에 협의회 사업이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2. 여타 국가산업단지들은 산단공 관리기관 체제하에서 특별한 충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업종의 한계나 산업 첨단화 발전 단계에서 낙후되는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고도화 사업 등으로 지속발전을 위한 혁신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도시 산단공은 입주관리 업무를 제외하고는 지원사업은 물론 구조고도화 사업 등 발전계획에 전혀 관심도 없고 추진할 계획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 2-가> 현재 출판도시 운영과 활동가치 보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1> 문화산업분야의 회사 유입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 마련 필요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추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선결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회사와 임직원 유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기관 및 기업이 필요하지만 출판 관련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산재(출판산업진흥원: 전주, 문학번역원: 서울 등)하여 출판 산업단지에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

<답 2> 산업시설의 유희공간 임대여 있어 공적 기관의 역할 수행 필요

- 부동산 임대업자들로 인해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허용되지 않은 도소매업체 유입이 증가하여 민간 자율 관리 체계 구성의 걸림돌로 작용함.

<질문 2-나> 신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문화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집행 기관 필요

- 출판산업은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1차 관문 역할을 수행하지만 산업 불황으로 기존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는 유통경로를 만들고 있지 못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기술의 접목을 통해 유통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3. 위 1-가. 항의 문제점 해결과 1-나. 항의 지속적 유지 발전과 2항의 필연적 과제 해결과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 산단공 관리체제를 입주자 중심의 관리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 외부의 다수 의견이 약 10여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질문 3-가> ‘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1> 민간 자율의 규약을 바탕으로 조성한 도시의 가치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 규약을 승계한 관리 기관이 필요함.

<답 2> 관리기본계획을 지키지 않은 입주사에 대한 법률 보다 강화된 내부 약속과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함.

<질문 3-나> ‘누구를 위하여?’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입주사의 권익보다는 어렵게 조성된 출판단지의 성과를 계승하여 국가의 문화 산업 인프라 구축과 국가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질문 3-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1>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 못한 ‘착공기한’, ‘산업용지의 환수’ 등의 각종 규제 업무를 관장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사가 단지 조성 목적에 맞춘 산업활동의 영위가 장려되어야 함.

<답 2> 입주사 지원 사업을 통해 수도권 내 문화기업의 출판단지 유입 극대화 외 각종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답 3> 직원 편의성 확대를 위해 각종 교통 기반 개선 및 정책 입안, 국고 지원사업 수행을 통한 문화도시로서의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함.

4. 국가산업단지로서 유지관리비와 문화산업단지로서 사업비는 국가(소관부처)가 지원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므로, 이 소요예산은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의 자치권과 독창성을 획득하고 문화적 가치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4-가> 출판도시 발전이 곧 입주자의 이익으로 당연히 돌아온다는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같은 마을 자치기구의 운영에 어떻게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1>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독립기관으로 회원사 및 임원들의 사익 추구의 ‘장’ 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사무국의 독립성 유지가 필요함.

<답 2> 또한 입주기업체협의회 내에서의 정책 수립은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관리권자와의 논의를 통해 연간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5. 이 외에 본 연구에 도움이 될 국내, 외 관련 사례나 참고자료?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오송생명과학단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대덕단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기업 지원 관련
- 문화기본법 ; 문화영향평가 관련

6. 건의 사항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의 유희부지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하여 검토하는 방안을 별도 제안함. 민간 자율의 관리기관 역할 수행도 중요하지만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역할 분배를 위한 공신력 있는 근간 수립이 절실함.
- 또한 출판도시 버전업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문화도시” 지정 필요
연구자 주 : 이상 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 임직원과 입주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사무국에서 취합한 내용에 대해 정리한 것임.

[참 고 문 헌]

- 국토연구원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2014)
-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2014)
-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2012)
- ‘삶의질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 관리전략’ (2012)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2012)
-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2010)

- 산업연구원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 (2008)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산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2011)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 입주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도입 및 활용 실태조사’ (2017)
-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개선 연구’ (2016)
- ‘산업단지 관리업무 개선 방안’ (2016)
- ‘산업단지 50년의 성과와 발전 과제’ (2014)
-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개선 연구’ (2016)
- ‘산업단지 비제조업의 입지특성과 정책 시사점’ (2014)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파주출판도시 관리방안 연구’ (2014)

-한국출판연구소

- ‘한국출판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현황 조사 연구’ (2012)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파주출판도시활성화전략연구’ (2013)

- 출판도시문화재단

- ‘파주책마을이야기’ (2008)

- 파주출판도시 조합 및 입주기업협의회

- ‘각종 보고서와 발간물’ 외

- 제4차 산업혁명, 김대호 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파주출판도시 관리방안 연구

발행일 이천십칠년 구월 이십육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연구기관 시애틀컨설팅 주식회사